

둘레, '시민 뮤지컬단' 하반기 공연 성료

'너와 나 우리' 3개월간 단원들 노력·땀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무대 채워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의 '시민 뮤지컬단'이 지난 11일 연지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 '너와 나 우리'를 선보이며 공연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민 뮤지컬단'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연습하며 유대감과 실력을 쌓아갔다. 이번 공연은 임금 착취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 강원도에서 올라온 시골 소녀,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주인공 할머니, 자식을 두고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희정 엄마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뮤지컬로 '잠, 예뻐요',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등의 넘버가 포함되어 있는 작품으로 무대를 빛냈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둘레의 '시민 뮤지컬단'이 지난 11일 연지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 '너와 나 우리'를 선보이며 공연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한 단원들의 노력과 땀이 무대에서 너무나도 잘 전달되었는지 단원들은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무대를 채웠고, 관객들은 울고 웃으며 단원들과 함께해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관객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는 점이 믿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상상조차 안 간다.", "단원들의 끼와 열정이 대단한 것 같

다. 앞으로도 정읍에서 많은 공연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3년 '시민 뮤지컬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둘레는 앞으로도 시민 주도의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사랑나눔 공예육성'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북무형문화재 장인 작품 8점 경매 수익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사랑나눔 공예육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결식아동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익금은 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지난 11월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전북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 8점을 경매하는 '사랑나눔 공예육성'을 진행해 모은 돈이다. 당시 경매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공예품전시관 입점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흔쾌히 내어주며 이뤄졌다.

기부식에 참여한 김중연 장인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결식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울거울을 따뜻하게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경매로 진행된 공예육성 행사는 시작 1시간여 만에 모든 작품이 낙찰돼 수익금 108만원이 모아졌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사랑나눔 공예육성'에 마음을 모아준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기부를 위해 경매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에 참여한 장인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윤규상 우산장 △제50호 최대규 전주나전장 △제51호 이신입 전주낙죽장 △제43호 이종덕 방짜유기장 △제58호 김중연 민속목조각장 △제10호 엄재수 선자장 △제61호 김신애 지승장 △제53호 안시성 부거리유기장 등 8명이다. 기부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식아동 5인에게 쓰여 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공연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가져

태권도진흥재단, 대상 1명·우수상 2명·장려상 6명 선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13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022 태권도 공연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재단은 지난 10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공연 등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22 태권도 공연 시나리오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명이 선정되었다. 대상에 오른 '태권심청'은 태권도 정신 중 하나인 인내를 주제로 심청가 등 판소리와 융합한 스토리로 구성했다. 소리꾼과 고수의 음악적 이야기와 국기 태권도의

매력이 적절히 어우러지는 등 우리 전통문화간의 결합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시나리오에 대해 총 4천만 원 상당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공모전 수상자의 저작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섰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태권도도 이제는 문화콘텐츠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 국기 태권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나리오인 태권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추후 태권도 공연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소리문화의전당서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연말 기획공연으로 21~25일까지 전당 연지홀에서 국민연극 '라이어 1탄'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코미디 연극의 정석으로 불리는 '라이어'는 한국에서 20년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공연으로 '국민

연극'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닌다. 연극 '라이어'의 원제는 'Run for Your Wife'로 영국의 인기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쿨니(Ray Cooney)의 대표작으로 숨 돌릴 틈 없는 빠른 전개, 어디로 뺄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 진실과 거짓이 숨 막히는 반전을 거듭하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재단 관계자는 "재치 넘치는 대사와 깔도 없는 거짓말 열전에 매 공연마다 객석을 웃음과 폭소로 가득 채우는 '라이어'는 특히, 공연 막바지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큰 반전으로 예상치 못했던 놀라움과 통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 백제왕도 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운영

익산시는 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지를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역사 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김중연 장인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결식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울거울을 따뜻하게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익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익산 여행의 재미와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스탬프투어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사랑나눔 공예육성'에 마음을 모아준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기부를 위해 경매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탬프 인증함은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제석사지, 고도리석불입상 등 익산의 역사관광명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정비를 통해 함일독립운동기념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구삼산의원을 추가했다.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는 각 지점에 설치

학생신분인 수험생들의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탬프 인증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스탬프를 15개 이상 찍을 시 증명하는 기념품을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 포함하여 스탬프 7개를 찍고 수험표와 함께 인증할 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남·전북 박물관·미술관협회 시·도 교류전시 익산서 개최

'전남과 전북'의 예술과 역사를 교류하는 예술기행전이 익산에서 펼쳐진다.

기부식에 참여한 김중연 장인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결식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울거울을 따뜻하게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W미술관'에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2022 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 시·도 교류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 회원관들과 전북박물관미술관협회 회원관들의 소장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는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적 발전과

교류를 목적으로 각 시도의 우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 회원관들과 전북박물관미술관협회 회원관들의 소장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는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적 발전과

신주연 W미술관 관장은 "이번 시·도 교류 전시회가 전남·전북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W미술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